

김씨는 내 아들 장난감을 매만졌다

불교계 최초 참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30가정 새 가족 맞아

북한이탈주민 남한가정체험 1박2일

“버스가 도착했어요!” 모두의 눈이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에 박혔다. 점점 가까워지는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사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가가 빨그레해지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눈물이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을 벗어나 우리나라에 온 북한이탈주민 126명으로 모두 하나원 145기 여자 교육생들. 남한의 가정을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남한 가정체험은 사회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 이번 가정체험행사에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한마음선원 부산지

원(지원장 혜도 스님)의 신도 30가정이 교육생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로 함께 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꾸준히 가정체험행사를 해 온 전주교 부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빈첸시오 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 종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11월 3일, 전주교 부산교구 교구청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이미 하루 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일박이일동안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주면 편안해 할까? 걱정도 많았고 계획도 넘쳐났다. 그러나 나란히 앉고 보니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이유도 모르고 붙어있는 눈시울과 먹먹해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신도들이 남한가정체험을 할 북한이탈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슴으로 이미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봉사자로 참가한 나는 북한 청진 출신의 30대 초반 김 씨와 가족이 되었다. 맨 몸으로 두만강을 건널 때의 두려움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위에서는 뒤집어지면 죽는

다는 공포를 넘어 왔다. 김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탈출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 지금도 악몽에서 깨어나곤 한다. 중국에 어린 아들을 두고 온 김씨는 내 아들의 동화책과 장난감을 자꾸만 매만졌다.

이번 가정체험의 주 과제는 15만 원으로 소꿉놀이. 한국의 물가와 쇼핑 문화를 이해하고 12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시간. 김 씨의 소꿉 스타일은 신중 또 신중이었다. 그리고 함께 한 저녁 식사의 주 메뉴는 오징어 회. 뱃사람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잡아 와 자주 먹었던 음식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먹었다. 나보다 한참 어린 그녀가 겪어낸 탈북과 탈북이후의 기막힌 사연들은 밤이 늦도록 이어졌다. 얘기를 나누며 분단이 한 인간에게 가져온 삶의 질곡이 이토록 깊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일에 대한 기도를 이토록 간절히 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일박이일은 너무나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은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엔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버스가 멀어졌다. 만날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보냈다. 흐려지는 버스를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은 하나였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소서. 부산=천미희 객원기자

100자 뉴스

덕송총림 수덕사 1411주년 개산대제

덕송총림 수덕사(주지 응산)는 10월 30일 '수덕사 1411주년 창건 개산대제 1000 승려(법화경)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사시불공과 개산조 지명 법사 부도전 헌다례, 개산대제 범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1400여 년 전 개산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1400여 년 전의 인연을 재현하여 구경(究竟)에는 오직 하나인 불성이 현현하여 그야말로 세계 일화(世界一花), 온 세계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염원하는 <법화경> 독경법회를 온 사부대중이 함께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응산 스님은 개산대제에 열린 산사 음악회를 대신해 모은 기금 500만원을 예산사장장학회 기금으로 예산군수에게 전달했다. 혜철 총칭지사장

활인선원 제4회 참선대중화 선회 개최

안성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선원장 대효)은 11월 12~14일 제4회 참선대중화 선회 '평등한 대중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참선'을 봉행한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선수행 지도는 선원장 대효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1644-5266 이상언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정재단(淨齋團) 발족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1월 1일 1층 만발식당에서 '정재단(淨齋團)'을 발족했다. 정재단(淨齋團)은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정재단은 어르신, 직원, 자원봉사자 대표 각 1인씩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정재단은 매일 식사 배급이 진행되기 전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날의 식단을 시식하고 식단에 대한 체크를 한다. 복지센터는 기록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인다. 이상언 기자

보현산 총효사 중창불사 2주년 회향

보현산 지장도량 총효사(회주 해공)가 중창불사 2주년 기념회향 대법회를 10월 31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장보살님존상 5000위 점안 불안식, 국운융창 민족화합 방생법회, 한마당 노래잔치, 산사음악회가 진행됐다.

총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총효사는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지장사상 중심 기도성취도량으로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반룡사 원효, 설총 육법공양다례제

원효 성사, 설총, 요석 공주의 열과 행적이 살아 숨쉬는 신라천년 관음도량 구룡산 반룡사(주지 해해)가 석축불사 회향식과 원효·설총·요석 공주를 기리는 육법공양 다례제를 10월 31일 봉행했다.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는 석축공사 준공식과 신라 무열왕이 외손자를 상봉하기 위해 경주에서 반룡사까지 걸었던 산길 걷기를 복원한 왕재산행이 열렸다. 제2부에는 지역 어르신에게 음식공양과 함께 즐거운 노래잔치, 연예인 공연이 진행됐다. 제3부에는 원효, 설총, 요석공주 다례제가 봉행됐다.

반룡사 주지 해해 스님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더불어 이 행사가 옛 성현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화합과 소통의 새 역사적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소통과 화합의 비전을 제시 기원

종단협, G20 성공 기원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1월 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 종단 대표들은 G20 정상회의가 지구촌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동체대비 지타불이의 정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등 20여 종단 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등 300여 사

부대중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봉행사에서 "전진국들의 배타적인 모임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사정과 의견이 반영되는 모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에도 눈을 돌리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잠자는 나라들간의 화합이 아니라 지구촌의 국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태고종 전국 승려 연수교육

태고종 총무원(원장 인공)은 11월 3~4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전국 승려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인공 스님은 3일 입재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승려연수교육에서 수행교화 일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사명발전과 포교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총무원 부원장 화경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봉 스님, 중앙초심원장 효성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상하 스님, 교무부장 범경 스님, 재무부장 해산 스님, 문서부장 범은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등 300여 종도가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3일 태릉선수촌을 방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 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제 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1월 3일 서울 태릉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12일 개막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선수단은 총 41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013명이 출전한다. 이 중 불자선수수는 배드민턴의 이응대 선수를 비롯한 168명, 불자임원은 흥명

보 축구감독 등 57명으로 총 225명이다.

자승 스님은 선수촌 도착 직후 김인건 선수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이기흥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체육인불자연합회장)에게 금일봉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스포츠 정신인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아름다운 매너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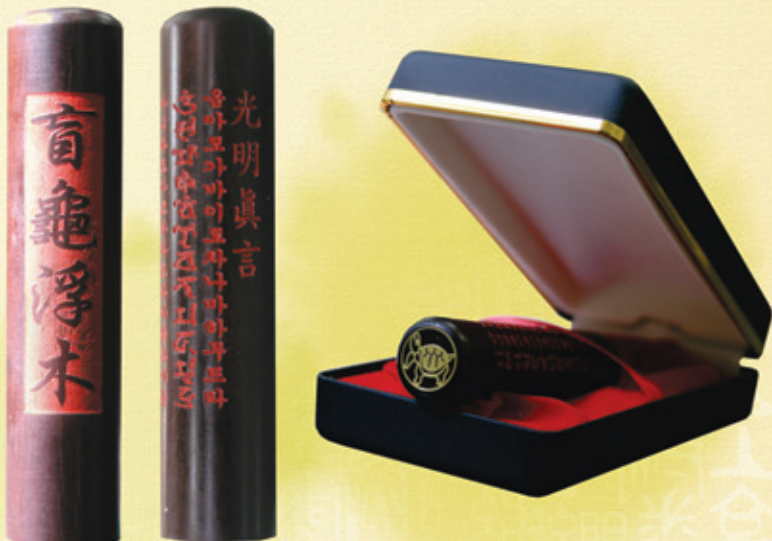
이어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혜종 스님 등 스님들은 태권도, 유도, 필드하키,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을 둘러보며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선수촌 법당을 찾아 이응대 선수를 비롯한 30여 불자 선수들에게 직접 단주를 달아주며 선전을 기원했다.

글=노덕환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기혈수비법으로 잘 알려진 남산스님 관세음보살님과 감음

남산스님의 영험한 맹귀부목 符

영험한 신통력을 가진 '맹귀부목'은 남산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감응을 받아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남산스님근황

파스 한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어느 곳이든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달려가 무료로 치료해 준지도 어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겪고 있는 2급시각장애의 고통을 오로지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삶의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스님께서서는 창선기도 중 관세음보살님과 감응하게 되면서 다문화 처녀총각들에게 인연을 맺어 주고, 어렵고 힘든 불자들의 고통화복을 알려주어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알려주시는 등 종전의 대체의학 보시와는 달리 영적세계와 불자들에게 이어주는 영험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맹귀부목을 받으신 분에게는 남산스님께서 직접 무모시로 감명을 해드립니다.

- *삼원 오행상 상생이 되지 않는 이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 *자신의 일과와 조화가 이루어진 이름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맹귀부목(盲龜浮木)이란?

행운목인 대추나무에 맹귀부목과 광명진언을 새기고 윗면에 황금거북을 아로새겨 놓아 맹귀부목인장의 영험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맹귀부목은 하는 일이 좀체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뜻밖의 행운을 만나 사업에 성공하고, 취업이나 진학의 뜻을 이루며,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맹귀부목도장을 소장하신 분들에게는 81명동수 비법으로 스님께서 직접 이름을 무모시로 감명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남산스님 약력
 -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중국 요녕성 중의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부산 무량영인불자회 지도법사

- 남산스님 저서(남산스님의 기혈수 비법)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남산스님의 기적의 파스요법) (남산스님의 타이핑요법) (천주름 허리와 교실 쪽 빼고)와 다수

- 언론사 방명
 -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 MBC 모닝와이드, TV 아름다운 가게
 - 아산 MBC 매거진 세상
 - MBC 휴먼TV 공감
 - BTN 불교방송 우리절 우리소리
 - SBS 호기심 천국 외 다수

이런분들은 남산스님의 맹귀부목을 소장하십시오.

- 부동산 • 자영업 • 취업 • 승진 • 시험 • 혼사 • 건강 등을 꼭 풀어야 하실 분들

무모시 감명하실 분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생시 :

남산스님 재비사 080-714-3030